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품)

# 東友會報

1986年 6月 30日 第112號【1】

발행인 鄭在哲  
편집인 申益炫  
인쇄인 崔在旭

東國大學校同窓會  
서울특별시 종구 밀동 3 가 26  
전화: (직) 267-8568 · 274-7449  
(교) 267-8131~9(465)

우편대체: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 東國 미래 밝혀줄 제13대 理事會



### 제48차 定期理監事會 개최

제48차 定期理監事會가 지난 18일 오후 7시 롯데호텔에서 鄭在哲 본회 회장, 李智冠 모교총장, 文泰植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및 2백여명의 신임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東國을 빛낸 동문 축하연을 겸한 이날 이사회는 제13대 이사 선임 후 첫번째 이사회기도 해, 시종 진지하고 화기애애하게 진행 되었으며, 예결산 심의, 회장단 추가선임, 사무국 이전 등 案件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회의장 모습 ①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金東正 부회장과 결산 감사보고증인 李詰鎬 감사 ②)

# “Made in Germany means quality, but some have PURE Quality!”

20余年 獨逸 西歐羅巴에서

우리나라, 中東, 東南亞,

阿弗利加, 美國等과

各種品目的 貿易去來,

技術諮詢, 事業管理 等의

貴重한 經驗으로, 相互

協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品質과 價格은 成功의

씨앗입니다.

願하시는 問議에 誠實히

報答하고 있습니다.



As you know, the german quality is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but some have PURE Quality as we know.

Therefore we are working successfully in Foreign Trade, Technical Consulting and Project Management with many german products (as well as other european products), more than 20-Year-Experience, from the simplest machines to the sophisticated plants.

This includes full service and licence-transfer if necessary.

Are you interested in?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we will do our best!

CHOY KG

Henry Chan Key Choy  
President

社長 陳基 (法56)

CHOY KG

Tel.: 4103032/33, 4106401, Telex: 21 1313 choy  
Böhmersweg 5, 2000 Hamburg 13, West Germany

(Ofcourse we also import your produ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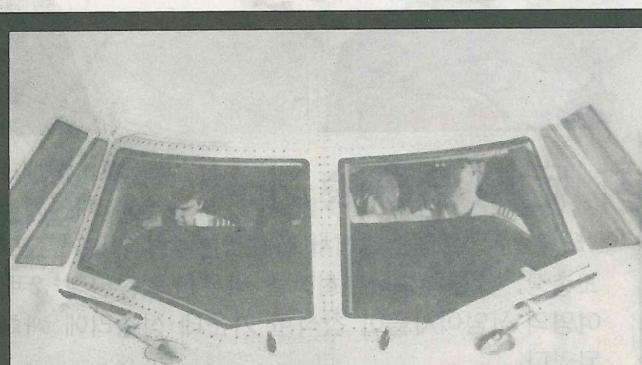
## 봇물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니컴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이끌기 위하여  
축적해온 봇물을 트려합니다.

한방울 한방울 깊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모아두듯,  
모든 경험과 깊은 안목으로 정성스레 꾀어온 봇물—  
좀더 성숙하고, 좀더 살찌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유니컴은 이제 조심스럽게 봇물 트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 가 48-20호, 경구빌딩 502호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8935 전화: 274-7214 · 274-4080



## 시카고, 씨애틀, 로스엔젤레스 미국 3대 도시로 노스톱 항공편 운항

미국으로 여행하실 때 노스웨스트 항공을 타시면 여러모로  
우리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 노스웨스트는 항공나이 도스맨셀렉스, 시카고 그린고  
시애틀 등 미국의 3대 도시로의 노스톱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도착 즉시 미국과 카나다의 50여개 도시로 곧바로 모셔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기내서비스와 요금에서도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즉, 한국인 여승무원이 친절한 서비스와 더불어 이코노미  
요금으로 국제큐다 클래스 서비스를 드리고 있으며  
나인거리에 따라 무료여행의 혜택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메리카에 따라 무료여행은 물론 노스웨스트 항공을 이용  
하십시오. 가장 많은 혜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여행하실 때 노스웨스트 항공을 타시면 여러모로  
우리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 노스웨스트는 항공나이 도스맨셀렉스, 시카고 그린고  
시애틀 등 미국의 3대 도시로의 노스톱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도착 즉시 미국과 카나다의 50여개 도시로 곧바로 모셔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기내서비스와 요금에서도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즉, 한국인 여승무원이 친절한 서비스와 더불어 이코노미  
요금으로 국제큐다 클래스 서비스를 드리고 있으며  
나인거리에 따라 무료여행의 혜택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메리카에 따라 무료여행은 물론 노스웨스트 항공을 이용  
하십시오. 가장 많은 혜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노스웨스트 오리엔트입니다.

NORTHWEST ORIENT

# 本회 제48차定期理事會 개최

18일 롯데호텔서 예산 및 결산案 등審議

- ◇…… 본회 제48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18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 ◇…… 다. 鄭在哲회장, 李智冠도교총장, 文泰植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및 백 2명.
- ◇…… 여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경과보고에 이어 예산안을 만다.
- ◇…… 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안건에 대한 심의와 신임이사들에 대한 추대장수를 결정했다.
- ◇…… 여, 축하·감사패수여 등이 있었다.

## 제13대理事 선임후 첫회의

제13대 임원진의 선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이사회는 鄭寬溶(58 법학·총무처장관) 등문동 등국을 빛낸 동문들에 대한 축하연을 결한 것으로, 南相龍(49 혜전) 동문을 비롯한 68명의 신임상무이사와 金光載(45 불교) 동문을 비롯한 3백 57명의 신임이사들에게 추대장을 수여하고, 85년 결산 및 86년 예산안 심의와 축하패 및 감사패 수여, 80주년 기념공연 「조선의 꿈」연기자들에게 대한 격려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관련기사 5면>

申益坎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 鄭在哲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새로 추대된 이사들에게 축하인사를 보내며 동국80년을 맞이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원한다』고 하고 동창회 기금모금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李智冠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문들의 혼신적인 노력으로 모교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고 전제, 『재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부속병원 건립, 학교부지 확장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李首冠(교보총장취임), 鄭寬溶(총무처장장취임), 洪淑세(세계여성단체협의회장파선),

朴培根(인천시장취임), 李永昶(서울시경국장취임) 등문동 동국을 빛낸 동문들에 대한 축하패수여와, 文泰植(49 혜전), 金聖涉(53정치), 鄭相永(61법학), 朴俊亨(63경제) 등문동 동창회관 건립기금 모금에 기여가 큰 동문들에 대한 감사패수여가 있었다. 한편, 회의순서를 바친 동문들은 식사와 함께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 동료들과 점담을 나누며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 본회 사무국이전…… 7월 중 매듭 회장단회의서, 金起東동문돕기 모금도

86년도 제3차 회장단 회의가 7월 2일 鄭在哲회장, 文泰植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회장

단 및 감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사무국 이전등의 현안을 토의했다.

이날 회장단회의에서는 현재 모교 학생회관 1층에 있는 사무국을 우선 7월 중 임대분양 형식으로 독립, 이전하고 지난 제48차 정기이사회에서 거론되었던 동창회관 건립기금 모금에 주력, 동문들의 우의와 단합의 요람이 될 동창회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자리에서는 지난 3월 31일자 본보제110호 10면에 보도된 바 있는 金起東(52국문·교교수·사진) 동문의 투병생활에 관한 얘기가 거론되어 회의도 중단한채, 文泰植수석부회장의 발의로 금동문을 드립기 위한 즉석모금을 벌여 1백만원을 모아, 사무국을 통해 금동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鄭

惠門會 야유회

강남구 宣陵서

모교출신 최고선배들의 모임인 惠門會(회장=金定基·49혜전·북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에서는 지난 1일 강남구에 위치한 宣陵에서 春季야유회를 가졌다.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날 모임에서는 白鬚의 동문들이 그동안의 안부와 40년전의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우정을 더우 두렵게 했다.

특히 大田에 거주하고 있는 洪性奎(62경계) 회원처워를 儒城으로 초청하여 많은 밤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鄭

대표이사) 南廷休(60영문·동방 기획 대표이사) 李金熙(65상학·태평양화학 전무이사) ▲부회장 =張雄明(64경계·시판부부장) ▲총무=張世煥(74경제·기획 1과장) ▲간사=金國濟(82경영) ▲영부( )

(회장= 유한양행 동무회) 李廷休(66 사회)에서

는 지난 18일 삼보가든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입원개선을 하였다.

이날 定總에서는 신임회장에 李廷休(66 사회)를 선출하고 申興均(62 경계·영업상무) 전회장을 고문에 추대하였으며, 총무에는 金仁洙(83 경석) 동문을 선출하였다.

## 霞城 학술상시상 유고집도 출간해

霞城 李道根(前교총장)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霞城 학술자단(이사장=黃壽永 전교총장)에서 제정한 「제 2회 霞城 학술상」 시상식이 지난 5월 12일 출판문화회관에서 있었다.

史學연구에 공로가 큰 학자들에게 주는 이賞의 수상자로는 崔在錫(고려대) 교수가 선정되었다.

한편 시상식이 끝난 후 霞城 선생의 두번째 유고집『역사와 민족』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이번에 출간된 유고집은 1백여명의 사학자들이 하성선생의 신문기고, 미발표 논문 등을 모아 만든 것으로, 앞으로도 2회기 유고집을 더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각급 단위 東友會定期總會

### 임원개선, 회비 정착 등 논의

(회장=李國民은행동우회) 鍾茂·57 법학)에서는 지난 5월 22일 평창동 소재 「푸른집」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李鍾茂신임회장을 선출하고 鄭在哲(54사학·봉천동지점장) ▲부회장=李在寧(62경계·신촌지점장) ▲총무=鄭在雄(71 경계·영업부부장)을 선출하는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새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李鍾茂(59법학·영업부장) ▲고문=金天壽(57경계·부행장) 鄭在哲(54사학·봉천동지점장) ▲부회장=李在寧(62경계·신촌지점장) ▲총무=鄭在雄(71 경계·영업부부장)

(회장=泰平양학회) 金炯國(62정치·연수원장) ▲고문=禹鍾植(52경계·태평양개발 대표이사·본회부회장) 李秉玉(59경계·태평양상사)

임수연장)에서는 지난 5월 22일 75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개선을 하였다.

새로 선출된 임원명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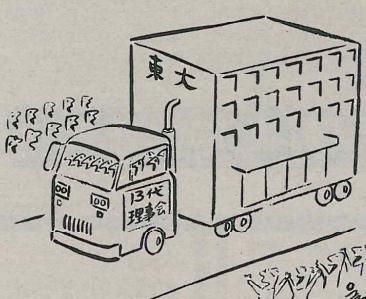
## 東國을 빛낸 同門 축하연 겸해

18일 열린 理事會에서는 東國을 빛낸 동문들에 대한 축하연을 겸하기도 해, 李智冠도교총장, 鄭寬溶총무처 장관 등 영전한 동문들과 文泰植수석부회장을 비롯,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공로가 큰 동문들에게 축하패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제13대 이사 선임후 처음 갖는 이사회이기도 해 이날 참석한 이사를 모두는 시종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하는 등 東國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東友漫評

鄭雲耕



“많은 활약 기대 합니다.”

## 서울투자·롯데, 새로 파악돼 매달 모임을 갖는 등 활발한 활동

서울투자금융주식회사 동무회(회장=趙誠冕·67 경영·영업부장) 와 롯데그룹 종업연구소 동우회(회장=李文植·77 식공·제3 연구실연구원 5팀 선임연구원) 가 최근 본회와 연락이 달아 새로이 파악되었다.

이들 지회에서는 매달 모임을 갖고 친목도모와 모교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데, 임원 명단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서울투자금융 주식회사

▲회장=趙誠冕(67 경영·영업부장) ▲간사=李奎德(82 경영·업무부 대리) 중구 을지로 2가 199-63 (771) 09

◇롯데그룹 종업연구소

▲고문=金忠虎(72 식공) ▲회

장=李文植(77 식공·제3 연구실

연구원 5팀 선임연구원) ▲총무=

柳順根(84 식공·품질 관리과)

(634) 0171~9

##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 「東友會報」를 開題하고자합니다

7만 동문들의 대변지 「東友會報」가 더나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기 위해 앞으로 매월 칼라인쇄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동창회 보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東國大同憲月報」로 제호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문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있으시길 기대하며, 더 나은 의견이 계신동문들의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東國大學校 同憲會 事務局

(267) 8568 (274) 7449

꿈속에서 해마다 조신이 막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늘에 주  
지스님의 서 있었었다. 주지스님은  
힘주어 얘기하고 있었다.

『인간의 나를 본 바탕에는  
과...』

모교 개교80주년 기념공연「調  
信의 꿈」이 지난 13일부터 5  
일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성  
황리에 공연되었다.

이번 공연은 개교80주년을 기  
념해 연극영화학과 동문회가 주  
축이 되어 기획·연출제작에 이르  
기까지 방송·연예계에 종사하는  
동문들로 구성되어 풍연된 것  
으로, 모교의 전학이념인 佛教  
를 소재로 하여 그 예술적인 가치  
에서도 크게 평가받고 있는  
7만동문의 저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 7만동문의 저력고사!

7만동문의 성원과 각계각층의  
비상한 관심 속에 이루어진 이번 「調  
信의 꿈」 공연은 「십자유사」에 실린 내용을 극화한  
작품으로, 주인공 調信스님의  
꿈을 통해 학스님이라기 보다  
는 한 인간의 生老病死의 과정과  
현실 및 지옥세계를 함께  
볼 수 있게 하여, 한 인간이  
사바세계와의 인연을 끊는다는  
것의 어려움과 佛門에의 길도  
그 뜻지 않게 어렵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5백여명에 이르는  
연극·영화·방송에 관계  
하는 동문들이 올해로 모교가  
개교80주년을 맞는 것을 기념  
하고, 동문들의 상호친목과 유  
대를 꾀하며, 단합된 의지를  
후배들에게 넓은 광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 그동안 몇 차례 거

론되어온 것으로, 모교와 본회  
의 제작비·보조금의 후원을 약  
속받았음으로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  
따라서 작품선정에 있어서  
도 일관연극보다는 모교의 전  
학이념에 걸맞는 불교극을 만  
들어 공연하기로 뜻을 모우고  
4월 초파일을 기해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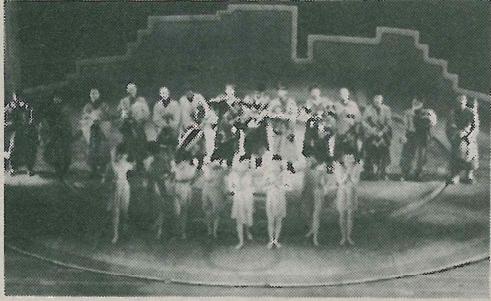
당에서 2개월여에 걸쳐 피  
나는 업습과 준비를 하였으  
며, 특히 스님의 여여령의  
연기자가 삽발을 하고, 출연  
료도 사양하여 공연에 참가  
한 현역 연기자들은 방송출  
연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밤  
샘을 해가며 연습에 참가하

버리고 그녀와 함께 도망해 신  
방을 차린다. 조신은 세월이 흐  
는 동안 5남매를 낳게 되고 그동안 가져왔던 금은보화를  
일부 도둑맞고는 생활을 위해  
갖은 고생을 겪는다.

조신은 동료인 해광스님으로  
부터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아

과 동문들로만 이루어진 이번  
「調信의 꿈」 공연은 국본을 쓴  
金興雨(64연령·1기·연영과 동  
문회장) 등문을 비롯, 연출  
金孝經(6기) 등문을 60여명의 스  
턴진 및 李成雄(1기·밸런트 협  
회 회장·해광스님의 이신재(2  
기·KBS 텔런트·태수역) 김무  
성(2기·MBC 텔런트·용선화  
상역) 정상철(9기·국립극단 배  
우·조신역) 이덕화(11기·M  
BC 텔런트) 임예진(19기·M  
BC 텔런트·달혜역) 등 70여명의 모  
교 출신 유명 현역 연기자들이  
배역을 맡아, 성공적으로 공연  
을 마친 것은 연영과 동문회와  
나아가 7만동문의 응집된 모  
교애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 개교80주년 기념공연



을 갖으려 했으나 기획이 늦어  
집에 따라 6월 13일부터 공  
연할 수 있게 되었다.

제작비 3천만 원 들여  
3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제  
작비가 투입된 이번 공연을  
위해 연극영화학과 동문 및 재  
학생들 70여명이 모교 중강

## 調信의 꿈

지도 태수집안에서는 팔과 조  
신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는 소식을 듣게 된다. 조신은 유  
일하게 자신의 거처를 아는 해  
광스님을 죽임으로 잡히지 않  
을 것이라고 믿고 그를 죽인다.  
그러나 조신과 달례는 곧 왕  
궁에서 밖에 잡혀 죽게 된다. 죽  
어 지울에 떨어진 조신과 달  
례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조신스님이 눈을 떴을 때는 낙  
산사 범당이었고 그의 앞에는  
주지 용선화상이 서 있다. 조신  
은 주지에게 사죄한다. 그는 깨  
우진 것이다. 그는 특노한 스  
님이 된 것이다.

## 母校출신 연예계 동문이 주축 三國遺史 바탕, 정통 불교극 예술성과 함께 佛教진흥도모

는 등 이번 공연은 그야말로 연  
영과 동문들의 땀의 소산이며  
모교애의 결집이라고 할 수  
있다.

### 「佛門의 길」 그려

洛山寺에 들어온지 얼마 안  
되는 調信스님은 주지스님의  
옹진화상의 입학한 지도일에  
수련을 쌓게 된다. 그러나 달례  
를 잊지 못해 늘 그녀의 생각  
에 집착해 있던 중 어느 날 달  
례와 그의 약혼자 양월의 장  
래를 기리기 위해 그녀와 가족  
들이 불꽃을 드리려운다.

조신은 법당에서 경을 외다  
갈에 빠진다. 꿈속에서 달례를  
만난 조신스님은 승복을 벗어

이상과 같이 한인간의 生老病  
死의 과정과 지옥세계를 통해  
佛門에의 길을 그린 이작품을  
위해 인도에서 수학하고 돌아온  
김민홍씨가 인부를 맡고,  
봉원사 스님(인간문화재)이 직접  
바리출판과 범퍼를 맡았으며  
해인사의 대웅전을 운반해온 스  
님 세사람이 불을 치고 文明大  
(도교 미술학과) 교수의 고종  
을 거치는 등 정통 불교극으로  
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동문들로만 이뤄진 무대  
특히 기획에서 제작, 공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연영

### 1,600년 佛教史에 한획

또한 본격적인 불교극을 두  
대에 올려 놓음으로 해서 불  
교와 연극을 접목시킴으로, 1  
천 6백년 우리나라 불교사에  
한획을 그으며 불교진흥에 이  
바지함은 물론, 그 예술적 가치  
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調信의 꿈」 공연은 연영과  
동문회의 母校愛의 결집이며,  
나아가 80성산을 쌓아온 東國  
의 의지와 무한한 저력의 소  
산임은 물론, 지난 80여년간  
우리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전  
통을 계승·발전시켜온며 이  
제 東國 1세기를 향하는 일대  
전환기를 맞은 모교의 내일은  
무한히 밝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구대였다고  
하겠다.

## 東友會報 창간10주년 기념광고기획[3] 「서로돕는 同門社會」

**대우자동차(株)**

“멋과 개성이  
함께 달린다.”

- 텔시 - 나
- 로얄 XQ
- 프린스 1.5
- 로얄 프린스
- 로얄 싸롱
- 싸롱 슈퍼
- 월드카 (로망) 판매개시
- \* 중고차 중개

판매대리: 崔鉉석 (74연령)  
TEL: 544-1928 · 1128  
(야간) 487-7539  
강남구 논현동 88-7  
(고려 B/D 1층)

**신용·친절·봉사**

**대한가축원**  
**영진가축원**

● 외국 수입견  
● 교회사육상담  
● 각종 견구 취급  
● 애완견분양

대표 서영진 (61경제)  
중구 총무로 5가 73-2  
266-0731 · 267-0195  
265-0086

**꽃배달**  
FLOWERS BY PHONE  
777-5040

전화 한 통화로  
축하의 기쁨과  
만족의 꽃이  
드립니다.

**뽀뽀의꽃방**

중구 소공동 1번지 롯데호텔 입구  
대표: 이금향 (77가교)

● 금은·보석·시계

**三正堂**

779-3360  
서울·중구 명동지하상가 마6호  
대표 金基俊 61경제

東國人은  
東國인이 경영하는  
나라항공으로

가장 저렴한 항공요금  
(후불도 가능)

**나라航空**

대표이사 安重五  
(65연령)  
776-7895-7  
752-4396-7  
삼구빌딩 1103호  
(조선호텔후문 맞은편)

# “會館건립에 東國의 모든 힘을,”

## 理事會 詳報

제48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18일 오후 7시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鄭在哲회장과 文泰植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이번에 새로 추대된 13대 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申益炫본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회 회장인사 축장축사, 축하 및 감사패 증정, 추대장수여, 안건토의 축하자인사, 폐회사순으로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鄭在哲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입이사진에 대해 축하를 보내며, 현재 진행 중인 동창회기금, 장학기금, 모금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아울러 모교와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하고 동창회관 건립에 진력한 것을 다짐했다.

이어 있은 축사에서 李智冠 모교총장은 『동문들의 혼신적인 지원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며, 재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있은 축하 및 감사패 선달순서에서는 모교총장에 취임한 李智冠총장, 총무처장관에 취임한 鄭寬溶(58법학)동문, 세계 여성단체협의회회장에 당선된 洪淑子(55정치)동문, 인천시장으로 영전한朴培根(67법학)동문, 서울시경국장으로 영전한 李永昶(58법학)동문에게 축하패를 수여하고, 동창회관 건립기금 모금에 공보가 된 文泰植(49혜전)동문, 金聖涉(53정치)동문 등에

(61법학)朴俊亨(63경제)동문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이어 南相龍(49사회)동문을 비롯한 68명의 신임상무이사 및 李光載(45불교)동문을 비롯한 3백 57명의 신임이사들에게 추대장을 수여하였다.

추대장수여를 마친 후 본회의로 들어가 金東正부회장을 임시의장으로 진행되었는데 경과

고 한뒤, 동문들의 지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로 보고를 마쳤다.

이어 李詒鎬감사의 『▲작년도 수납실적이 저조 했으나, 현재는 좋아지고 있다 ▲회보발행을 더욱 중대 할 것 ▲일반 권리비 지출이 꾀디 ▲장학재단 구성을 회장단에 건의 ▲사무실 부지 확보 시급 ▲동



▲鄭회장이 李智冠모교총장에게 축하패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鄭寬溶, 洪淑子, 朴培根, 李永昶동문등 동국을 빛낸 동문들에게 축하패가 수여되었다.

## 예·결산案 등 만장일치로 통과

## 장학재단설치등 회장단에 위임

보고에서 宣晋圭 상임부회장은 『이번 이사진 선발과정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으며, 사무국의 예산절감에 충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장학사업 결과, 장학재단기금 모금 현황, 체육기금지원상황, 임회비, 회관건립기금 모금등에 관해 상세히 보

창회에서 재단에 파견한 이사의 처리 결과보고 미흡 ▲상임부회장제도를 두어 사무국업무가 원활해졌다 ▲이월금과 적립금 3,600만원을 마련해 집행부의 신뢰도를 높였다』라는 내용의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85년도 결산안 및 86년도 예산안등 안건을 참석이사 전원의



▲文泰植동문



▲金聖涉동문



▲鄭相永동문



▲朴俊亨동문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新羅 명과

소비자 상담실 863 - 4040

대표이사 홍평우 | 70 경영



現代自動車(株)

현대생산차종: 엑셀  
프레스토  
CXL  
소나타

현대인이 선택하는  
정상의 승용차!  
“L Car” 판매개시

2,000CC  
2,400CC  
3,000CC

“전화 한 통화로...”



TEL 274-3103~7  
아간 914-6584

판매과장 : 柳在善  
(70동경 · ROTC 8기)

## 85·86年度 예·결산수지표

<수입>

항 목	85예산액	85결산액	86예산액	비 고
전 기 이 월 금	3,534,801	3,534,801	0	이월금
입회비·동창회비	70,000,000	65,986,500	73,000,000	회원수
이 자 수 입	1,000,000	2,515,632	1,000,000	회원수
년 회 비	13,000,000	8,053,544	10,000,000	회원수
이 사 회 비	15,000,000	5,540,000	10,000,000	회원수
상 무 이 사 회 비	12,000,000	3,100,000	6,000,000	회원수
광 고 수 입	5,000,000	9,596,298	10,000,000	회원수
기 타	465,199	0	0	회원수
총 계	120,000,000	98,326,775	110,000,000	

<지출>

회 의 비	3,000,000	2,001,740	1,000,000
행 사 비	5,000,000	4,748,000	2,000,000
조 직 강 화 비	5,000,000	660,000	6,000,000
경 회 보 간 행 비	3,000,000	3,184,000	3,000,000
장 학 금	18,000,000	26,075,000	22,000,000
재 학 생 보 조 비	3,000,000	3,020,000	3,000,000
인 건 금	16,900,000	16,580,000	16,800,000
상 여 금	7,200,000	7,110,000	5,320,000
활 동 비	2,400,000	2,400,000	2,400,000
교 통 비	5,000,000	1,080,000	3,000,000
장 배 비	1,000,000	1,115,000	2,000,000
인 쇄 품 비	3,000,000	3,412,445	3,000,000
통 신 력 료	200,000	84,000	1,000,000
구 구 품 비	3,500,000	1,880,565	2,000,000
기 넓 품 비	300,000	267,300	300,000
소 지 금 수 수 료	5,000,000	0	500,000
회 립 금	1,500,000	145,090	1,000,000
예 비 비	25,000,000	16,529,658	20,000,000
회 직 연 금 비	6,000,000	543,416	4,680,000
사 무 실 관 리 비	2,000,000	1,005,000	2,000,000
총 계	120,000,000	98,326,775	110,000,000

▲결산(85. 3. 1 ~ 86. 2. 28) ▲예산(86. 3. 1 ~ 87. 2. 28)

박수로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번 80주년 기념사업으로 공연된 「조신의 꿈」 관계자들이 참석, 인사말을 통해 崔基奎(연예 2기 · 공연준비위원회)동문은 『개교 80주년 기념사업으로 이 행사에 마련 했으며, 혼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교와 동창회에 감사를 드린다』며 「무보수로 참여한 연예과 동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토의된 기타사항

에서 金東正부회장은 『부회장 증원, 장학재단 설치문제, 학교법인에 파견된 재단이사 교체 문제 등을 회장에게 위임해 달라』고 제청, 박수로서 통과시

켰다.

안전토의가 끝난 후 金東正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국인의 긍지를 갖고 모든 정치현안에 임하고 있다. 각계 각종 연중기념사업으로 이 행사에 참석해 주었던 여러분의 저력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역량을 회관 건립기금 모금에 접목시키자』라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본회 사무국에서는 이날 참석 이사 전원에게 새로 제작한 임원수첩과 鄭在哲 회장의 기념품인 바인더 및 李智冠 모교총장이 기증해온 개교 80주년 기념문진등을 증정하였으며, 이사 추대장을 개인별로 우편발송하기로 하였다.

## 三山產業株式會社

“보다 효율적인 광고효과는  
同門 노병현 · 김윤경에게  
맡기십시오”

“  
국내외 종합광고  
기업 PR용 판촉을

컴퓨터 조정밀가공 제조업체

電話發注 742-7169  
745-1491

代表理事 盧秉賢 (71사학)  
専務理事 金允經 (경대원)

## 자이레「공로 대훈장」받아

鄭在哲 本會회장



鄭在哲 (52歳) - 정무 제 1 정관 · 국회의원 본회 회장은 지난 6월 20일 롯데호텔에서 봉

### 榮錫獎學會 설립

安范蘭 동문



概說」을 펴내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모교 佛敎大學 學長으로 있다.

瑞逸工專 教長으로

黃淳九 동문

黃淳九

(61 국문)  
동문이 최근 재전대학 국문과에서 端應 공전 학장으로 취임 했다.



립했다.

안동문은 그간 福地中·高를 설립하는등 사회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교육적 공로로 82년 美 캘리포니아의 「골든스테이트」 대에서 명예 철학사학위를 받은바 있다.

또한 東女會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모교와 본회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회 상무이사.

### 「서산사상연구회」 회장

金煥泰 동문



金煥泰

(59불교·

교수)

동문이 최근 열린

『西山사상

연구회』창

립총회에

서 초대회 장에 선임됐다. 西山사상 세 3 백 81주기 및 불단 2530년을 맞아 결성된 이 연구회는 앞으로 서산사상연구와 西山도서관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金동문은 최근 「韓國佛教史



李赫錫 동문

李赫錫(62

국문·문인학

회 수필부과

위원장·본회

감사)은 현

재 방송되고

있는 KBS

제 1 라디오

역사 드라마

장에 선임됐다. 西山사상 세 3

백 81주기 및 불단 2530년을 맞

아 결성된 이 연구회는 앞으

로 서산사상연구와 西山도서관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金동문은 최근 「韓國佛教史

## 세동문 各界회장 피선... 東國의 저력파시



▲李敏輝동문



▲李成雄동문



▲설송동동문

李敏輝 (56 정치) 동문들은 비롯하여 각계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고 있는 3명의 동문들이 최근 각각 소속단체 회장으로 피선 되었다.

▲李敏輝 (56 정치) 동문이 在美 88올림픽 후원회 회장에 피선되었다.

李동문은 재학시 학생회장을 역임 했으며, 졸업후 도미하여 샌프란시스코, LA 교민 회장을 역임 한바

있다. 이번 李동문의 회장당선은 美洲지역에서 뛰고 있는 동문들에게 커다란 힘이 됐다. 韓國인의 긍지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李동문은 지난 67회 전국체전 재미동포 선수단 고문으로 입국하여 흥행한 성과를 거두고 귀국하였다.

▲李成雄 (64연영·KBS 빌런드) 종문이 지난 6월 28일 제 10대 텔런트 협회 회장에

장으로 선출되었다.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에서 열린 제10차 월례비전 방송 연기자협회 정기총회에서 실시된 이날 선거에서 참가회원 3백 50명중 李동문이 1백 85표로 1백 64표의 오현경 후보를 누르고 새회장에 뽑힌 것이다.

▲설송동 (65 수학) 동문이 지난 5월 17일 4·19회 회장에 피선되었다.

설동문은 고교재학시(중동고) 학생대표로 4·19에 참가하여 건국공로포장을 수상하였으며, 대통령경호관을 거쳐 현재는 제우교역(주) 부회장에 재직 중이다.

한편 지난 27일 한국일보 13층 송현크루에서 취임식을 거행했으며 앞으로 3년동안 4·19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다.

「風雲의 太陽人」을 칭한다. 이 드라마는 四象醫學의 거두 東武 이제미의 일대기를 극화한 것으로, 7월 말에는 思想社에서 책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한편 7월 10일 경에는 李동문의 4번째 수필집인 「당신품에 얼굴을 물고 싶을 때」가 법조사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 「週刊佛教」 창간

金容午 동문

金容午  
(71行院·  
鎮牛·國學  
의원·본회  
이사) 동문  
은 월간하  
인 「불교회  
보」를 주  
간으로 바꾸고 제호도 「週刊佛  
敎」로 개체, 부서님 오신일인 지난 16일 창간호를 발간했다.

金동문은 이전까지 佛敎會報 4만여부를 발행, 신도, 사찰에 무료배부해 오는 등 후진양성과

불교미술협회전을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동대미술관에서 열었다.

모교 및 서울대 홍익대 출신 학가들로 구성된 불교미술협회전에는文明大교수의 「아미타산을 맛이하는 그림」을 비롯 柳麻理 (78 미술), 金相均 (78 미술), 安秉燦 (78 미술), 崔顯植 (79 미술), 姜舜馨 (79 미술), 鄭鄒澤 (80 미술), 金英淑 (80 미술), 金鍾燮 (83 미술), 李相培 (83 미술)

으로 현재는 모교 도서관장으로 재직하면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다.

### 불교미술협회전 개최

文明大 교수

文明大  
(모교 미  
술과·한국  
분교 미술  
협회 이사  
장) 교수는  
모교 개교 80 주년을  
기념하는 불교미술협회전을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동대미술관에서 열었다.

모교 및 서울대 홍익대 출신 학가들로 구성된 불교미술협회전에는文明大교수의 「아미타산을 맛이하는 그림」을 비롯 柳麻理 (78 미술), 金相均 (78 미술), 安秉燦 (78 미술), 崔顯植 (79 미술), 姜舜馨 (79 미술), 鄭鄒澤 (80 미술), 金英淑 (80 미술), 金鍾燮 (83 미술), 李相培 (83 미술)

報이 위  
本  
人  
의  
近況  
를  
提  
示  
합니다.  
本人의  
임동물  
의  
近況  
를  
提  
示  
합니다.  
어제  
라  
도  
提  
示  
를  
주

포교사업에 남다른 정열을 보여왔다.

한편 金동문은 불국사, 조계사주지, 송무원장職代, 佛敎新聞社社長, 부산 大覺寺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新民縣國회 의원으로 활약중이다.

한국무여학회 회장에

錢昌源 동문

錢昌源  
(57경제·  
교수)  
모교 도서  
관장·本會  
이사) 동문  
이 지난  
28일 서울  
아카데미  
한국무여학  
회 성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李동문은 모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후, 모교에서 경상대학, 해외개방연구소, 경영대학원 등을 역임한 東國

을, 金成植 (84 미술), 金별 (84 미술), 鄭成玉 (85 미술), 동문들의 각종 佛敎美術作品 20 여점이 출품됐다.

회화, 조각, 수예, 판화등으로 다양한 작품이 출품된 이전시회에서 文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모교 80주년을 기념하고 불교미술이 한국화단에 정착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기장에서부터 불교신앙을 생활화하는데 이전시회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모교 경주캠퍼스 불교미술학교 출신의 신진화학과의 제 2회 대나리전이 부산 광복동 유화랑에서 지난 12일부터 19 일까지 열렸다. 여기에는 鄭鄒澤 (83 경주) 동문등 13명의 동문이 참가, 30여점의 선물을 보였다.

「萬海文學賞」 본상 수상

俞漢根 동문

俞漢根  
(79 국문·  
평론가) 동  
문이 지난  
19일 월간  
佛敎 思想  
이 주제로  
는 제3회  
萬海 불교

문학상評論부문에서 「한국현대불교시와 주제전통」으로 본상을 수상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문학상評論부문에서 「한국현대불교시와 주제전통」으로 본상을 수상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故 李鍾聲 (48불교·본회이사) =長女 朝美화족 지난 21일 태국당 예식부에서.

▲金潤善 (60경자·본회이사) =지난 5월 24일 경남예식장에서 長女 美植화족.

▲金鍾燮 (60경자·본회상무이사) =次女 銀暉화족 지난 27일 KOEX 결혼회관에서.

▲朴昇鍾 (82林學·교수) =지난 1일 국립예식장에서 본인화족.

문화상評論부문에서 「한국현대불교시와 주제전통」으로 본상을 수상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3년 中央日報 신춘문예에 詩論, 84년 東亞日報 신춘문예에 詩論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목원대강사 등을 역임했고, 文協 사무국장겸 月刊 文學 편집부장으로 있다.

俞동문은 7



## 烏菴國을 향해

慧超의『往五天竺國傳』에「鬱地引那」로 소개되고 있는 스와트盆地를 향해 칠리스를 떠난 것은 12월 21일 상오 7시 30분 오후 7시가 넘어 도착한 사이우—시리프市는 4세기 말 스와트제국을 여행한 중국승 法顯의『佛國記』에 「烏菴國」으로 소개된 우자니의 수도 미르고라市에서 스와트강을 사이에 두고 영국이 통치할 때 그들이 건설한 신시가지이다.

烏菴國은 「佛國記」에 불교사찰이 5백개나 된다는 대단한 불교국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6세기에 이곳을 찾았던 중국의 宋雲·惠生 또한 여기가 철저한 불교국이며 기후와 토질이 좋아 2년간이나 이곳에 머물렀다고 여행기에 적고 있다. 특히 7세기에 이곳을



李 青 岩



들렸던 文獎은 「大唐西域記」에서 이곳을 「烏代那國」으로 소개, 당시 불교는 다소 쇠퇴했으나 선성기의 「1천 4백가담」과 승려 「1만 8천」이었던 여세를 이어받아 여전히 성황을 누렸던 것으로 적고 있다.

22일 아침 7시부터 우리는 활동을 개시했다. 먼저 미르고라市에서 西北으로 약 60km떨어진 디르와 치트랄가도쪽으로 차를 몰았다. 치트랄은 「往五天竺國傳」에 불교를 돋신하는 「拘衛國」의 수도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高仙芝장군이 일생의 절정기인 天寶 9載(750년)에 접경했던 州城로 또한 치트랄과 접한 힌두쿠시산中の小國이었기에 일찍부터 이 가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 알렉산더의 진격로

차는 오래된 가로수길을 西北으로 계속 달리다가 폐사워르의 갈림길에서 스와트강과 다시 마주쳤다. 안내자는 「알렉산더」 대왕의 진격로가 이길이었으며 그후 많은 이민족이 대부분 이길을 거쳐 인도대륙으로 침입해 들어왔다며 말한다.

스와트강변을 따라 달리던 차가 철교를 건너려는 순간 안내자가 다리쪽 산위 조그마한 건물을 가리키며 철수장이 사병으로 보조근무를 하던 곳이라 설명한다. 길에 뛰어온 산들을 지나 디르박물관앞에 멈추자 사람들이 호기심에 찬 눈초리로 모여 들었다.

작은 규모였지만 그리스조각

## 우리佛教 美術의 뿌리를 찾아

80周학술답사 西域8千里 紀行

— 3 —

기법이 뚜렷한 불교유물로 가득 찬 디르박물관을 빠져난 후, 몇 군데 더 불교유적을 조사하고 미르고라市에 도착하니 오후 1시. 우리는 미르고라의 상업지구를 구경하다가 한적한 곳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상포를 보았다. 자비의 세계를 구현하는 지혜의 뿌리를 찾기 위해 慧超를 비롯한 「求法僧」, 그리고 아시아세계의 지배권장을 액이라는 앙망을 품었던 高仙芝장군이 다녀간 이땅에 이제 가냘픈 우리의 無名織女의 손으로 짜여진 직물류가 이곳에서 새용되고 있는 것을 보니 이 낯선 땅도 남의 나라가 아닌 것 같아파스한정을 느끼게된다.

## 佛教美術 뿌리를 찾아

23일 우리는 일찌 출발준비를 서둘렀다. 왜냐하면 어제 늦어져 보지를 못했던 부트카라佛蹟을 보려기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일행은 실내불탑으로 유명한 부트카라佛蹟 2호를 끌려 부트카라佛蹟 1호

미국의 여행기와 文獎의 「大唐西域記」, 慧超의 「往五天竺國傳」에서도 「建駁羅國」을 소개하는 중에 폐사워르의 신암생활과 法俗같은 것이 다른곳에 비해 심세히 짜여있는 집에서 일수 있다.

7세기의 中國僧 玄奘에 따르면 당시 폐사워르는 둘레가

는 인간의 무한한 소망과 높은 품위가 차기운 풀을 통해 속된 일에만 쫓기어 뛰고 있는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달래 주는 것 같았다. 특히 2층 한모퉁이엔 그리스神像에서 佛像으로 바뀌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있게 진열되어 있었다.



▲ 타티바리사원 전경

古都의 물락...인류역사의 榮枯盛衰가  
여정 속에 살아있는 祖上의 숨결  
「미르고라」상점에도 우리織女의 손길이

▲ 폐사워르 자리타지부조암에서의 퍼자。

를 다시 찾았다.

부트카라佛蹟 1호는 1만평 이 넘는 경내에 불탑을 중심으로 기단부에 불상과 法輪이 정교하게 새겨진 승방과 법당 등 건물유적이 잘 보존돼 있었다. 안내판에 중국의 求法僧들이 많이 들렸던 국제적인 사찰이었다는 내용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지역을 통과한비었는 우리의 慧超도 이 사찰에서 들렀을 것은 거의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폐사워르쪽으로 차를 몰았다. 폐사워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긴거리 불교미술은 우리 불교미술의 뿌리로서 미술사 연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지역일뿐 아니라 高仙芝장군의 업적을 살리기 위해서도 아프카니스탄의 카불계곡에서 빠져 西北으로 통하는 이른바 카이발 가도는 꼭 답사할 필요가 있는 길목이다.

폐사워르가 中國이나 新羅의 불교도들이 꼭 들려야 하는 순례지의 하나로 꽤 있었던 것은 고길동이다. 걸어온 산들을 지나 디르박물관앞에 멈추자 사람들이 호기심에 찬 눈초리로 모여 들었다.

작은 규모였지만 그리스조각

## 마지막 기차지 라호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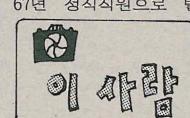
구과 내부부의 허가없이 출입을 금한다는 말에 기이발 고개에서 발길을 돌려 라호르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폐사워르공항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 그

## 운전기사 金文一

『1959년 모교 관재과 소속 트럭기사로 東國에 빨을 들여 놓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는 공사장을 방불케 했지요. 지금의 東國은... 격세지감을 느낌니다』

이렇게 말문을 연 金文一(48세·관재과비품관리)씨

임시직 트럭기사에서 1967년 정직직원으로 발령



금년 4월 관재과비품관리식으로 사리를 옮긴 때문인지 학생들의 비품에 대한 애착심을 가져줄것을 당부하면서『학교발전에 대한 종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한 학교 학생, 동창들의 연계성 있는 결속이야말로 동국발전의 접경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름대로 東國발전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

빠듯한 생활속에서도 부인 손희영여사 사이에 2男1女를 두고 다복한 가정으로 특히 장남 정부군이 올해 모교 경영학과에 입학해 더욱 자랑스럽다고 한다. <震>

러나 거기서도 연착되는 비행 기시간 때문에 雨中の 범란한 500km의 산길을 9시간이나 달려 라호르에 도착해야 했다.

라호르 박물관의 유물을 보면서 그것이지니고 있는듯에 대해서느끼는 바가 적지않았다.

그것은 비단 이 박물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관한 우리나라 박물관의 문화재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불교유물의 내용과 현재 우리나라의 종교현황이 너무도 거리가 멀어 당혹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생사를건 이지역의 투쟁에서 「慈悲」의 구현을 이상으로 한 불교가 삶의 기본이 되기엔 너무나 괴리가 있던데 아닐까? 그리하여 이슬람의 종교신조가 이 지역에선 더 현실적인 것으로 되어 버린것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천하면서도 되풀이 되는 인간생활의 한 단면인지도 모른다.

東西로 만년설의 비장을 놓고 이어지는 카라코룸하이웨이, 이곳을 통해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이곳은 또 어떻게 변화할것인가....

성식하고, 난전적이며 구김살이라곤 찾아 볼수 없는 이나라 사람들의 정든 얼굴들을 뛰어하고 라호르공항을 떠나 뉴델리로 향했다. <끝>

지난 110호부터 3회에 걸쳐 본보에 연재했던 李龍範(50사학·모교교수)동문의 모교 개교 80주년기념학술답사기 「西域 8千里 紀行」을 이번호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는다.

모교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학술조사단의 답사는 국내최초로 파키스탄의 「캐라코룸 하이웨이」를 따라 현지 유물 및 유적을 조사함으로써 韓國史의 영역 확대와 한국 불교미술의 새경지를 마련했다는데 커다란 학술적 가치가 있다.

그동안 본보에 연재 할수있도록 도와주신 李龍範(50사학) 모교교수와 사진자료를 제공해 주신文明大교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편집자註>

## 「惠專」교표를 찾습니다.



「惠化専門學校」의 교표를 찾습니다. 1906년 교육구국의 기치로 佛教界의 신진자들에 의해 「明進學校」로 개교한母校은 그동안 「佛教專修學校」「中央佛專」「惠化専門」「東國大學」을 거쳐 오늘의 「東國大學」로 발전해 왔습니다.

찬란한 東國 1세기를 향한 거고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母校에서는 東國의 생생한 빛자취를 담은 「東國80年史」 발간 사업을 추진중이나, 위의 사진에서와 같이 이제껏 「惠專」의 교표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니다.

蕙專을 출입하신 동문들중 惠專의 교표나 교표를 찍은 사진들을 갖고 계신 동문들께서는 동창회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타군단」東國야구 역사최강 대통령기 우승비롯 4년연속 우승기록

「초호화 탄선」 「스타 군단」 등  
의 詩이 불어나니는 모교 야구부가 대통령기 대회 우승을 비롯, 춘계리그 준우승, 배호기대회 준우승등 올시즌 세대회를 통해 대학 최강임을 과시했다.

한편, 모교 야구부는 83년 춘계리그 우승, 84년 내봉령기 대회 우승, 85년 춘계리그 우승, 그리고 올해 대통령기 대회 우승등 4년 연속 전국규모 대회에서 우승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5월 7일 대학문구장에서 폐막된 「제20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대학 야구대회」에서 모교는 결승전서 중앙대를 맞아 10대 5로 역전승 하기까지 전개임을 역전승으로 이끌어 텁텁유의 끈기를 보여주며 지난 3월 춘계 연맹전에서 원광대에 이어 9회에 역전패, 준우승에 그친 선우를 했다.

한편 지난 30일에 있은 「제36회 배호기챌린 전국종합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시즌 2관왕을 노리던 모교는 전남상무를 맞아 연장 12회까지 가는 접전끝에 2대 2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이날 대경기에 들어가 3회 1점을 석취했으나 6·7회에 3점을 내주고, 이후 여러번의 득



▲대통령기대회 中央大와의 결승전모습.

접기회를 살리지 못해 결국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다.

### 모교총장기핸드볼 永東·昌文女 패권

지난 5월 23일 폐막된 모교 개교 80주년 기념 「제 2회 모교총장기 쟁탈 전국남녀우수고교 핸드볼대회」에서 永東高와 昌文女高가 각각 남녀부 패권을 차지했다. 남녀부 각 6개팀이 풀리그로 접전을 벌인 이번 대회 최종일 경기에서 永東高는 大田體高를 34대 22로 대파하고 5점전승으로 우승기를 안아 2년연속 패권을 차지했다.

한편 여자부의 참문여고는 최경여고를 맞아 접전을 벌인 끝에 27대 22로 누르고 4승 1부의 점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男子部=①영동고 5승 ②정석함고 ③고려고 이상 3승 2패(골득실차) ④대전체고 ⑤조대부고 이상 2승 3패 ⑥북호고 5패

▲女子部=①창문여고 4승 1부 ②부산진여상 3승 1부 1패 ③휘경여고 3승 2패 ④의정부여고 2승 1부 2패 ⑤성희여고 1승 1부 3패 ⑥백제여상 5패

우리의 고유한 아름다움.

그것을 고려는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려제이드**  
대표 박찬대

서울·중구 장충동2가 162의 1 대 광빌딩 A동 5층 (중앙우체국서점 5047호) 전화: 274-6411, 6412

## 모교開校80周年 기념식 거행

### 5월 8일 중강당서 30년근속자등 표창도

모교의 「개교 80주년 기념식」이 지난 5월 8일 李智冠총장, 吳綠園 재단이사장, 金東正본회 부회장, 宣普主상부회장 및 내외인사, 교직원 학생 등 7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삼귀의례, 학교발전을 비는 발원문 봉독, 연혁보고, 장기근속자 표창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李智冠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東國人과 佛教界의 속임이었던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건립과 함께 東國 醫學院 설립무체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장기근속 및 근무자 표장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30년근속자=吳正權(출판부장)

▲20년근속자=申國柱(정외교수)

河德模(식공과교수) 高米鎮(총무처) 李榮載(〃)

▲10년근속자=金仁德(불교학과교수) 金鎭煥(선학과교수) 趙承煥(미술학과교수) 洪起三(기획조정실장) 李鍾燦(국문과교수) 許天澤(영문과교수) 金恒培(哲학과교수) 極賈穆(영명과교수)

朴昌魯(법정대학장) 趙熙榮(경상대학장) 朴教秀(임학과교수) 蔡明希(교육학과교수) 金昌洙(국사교육과교수) 孫昌求(경주 환경조경학과교수) 薛永基(경주부역학과교수) 車俊煥(총무처 경리주임) 李昌鎮(총무처 시설주임) 李炳天(체육실 체육주임)

河정윤(이과대학주임) 車璇九(사법대 교학주임) 김희철(총무처)

▲10년근무자=姜泰遠(물리학과교수) 鄭用吉(정외과교수) 張忠植(경주 고미사과교수) 宣相圭(원대원 교학주임) 정용수(총무처)

### 「東大文學賞」제정 東國文學전통계승

모교의 東大新聞社에서는 개교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東大文學賞」을 제정,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東國의 文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韓國文壇을 주도해 갈 참신한 大學文인의 등용문이 될 「東大文學賞」은 전국에 소재한 4년제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詩, 小說, 評論의 세분야에 걸쳐 모집을 하며 작품제출기한은 오는 9월 20일까지이다.

### 開校기념 학술세미나등 활발

### 「佛教와...」「韓國法制 40년」등

모교의 불교문화연구원(원장

=李載昌교수) 주최 「불교학술세미나」가 지난 5월 10일 관계자 및 교수·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세미나실에서 열렸다.

「佛教와 諸科學」이란 주제 아래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姜信杓(한양대)교수, 金文煥(서울대)교수, 薛永基(前교부부장관), 金泳宗(모교식공과)교수, 趙慶哲(연세대)교수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佛教가 人文·社會·自然科學等 제반학문에 기친 영향에 대한 고찰이 있었다.

「韓國法制 40년 학술심포지움」이 지난 5월 10일 국내 법학자와 교수, 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문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慶州지역 발전에 관한 방향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민족문화의 재개발과 지역사회에 대한 발전 방향 모색 등을 꾀했다.

미나실에서 열렸다.

모교의 개교 8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열린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해방후 우리나라의 각 법제사의 고찰을 통하여 당시의 사회상을 재조명하는 한편國內諸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모교의 개교 80주년 기념 「경주캠퍼스학술 심포지움」이 지난 5월 28일 南都泳부총장, 李相培경북도지사를 비롯 각계인사 교수, 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문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慶州지역 발전에 관한 방향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민족문화의 재개발과 지역사회에 대한 발전 방향 모색 등을 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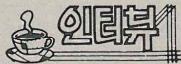
# “자부심과 긍지로 東國 1세기를 맞자.”

80周 實務推行委員長 吳國根 동문



그런대로 중지를 모아 전동국 인을 위한 행사계획을 마련해 옵니다만 추진단계에서 학내외적 사정으로 인해 사설상 거의 전부가 축소되고, 연기되고 해 龍頭已尾격이 되어버려 꼭 유감스럽습니다.

구한말 교육을 통한 구국개혁의 기치아래 明進學校를 개



## 90周·1백주에는 보다 알차게 집행되기를 校勢위축 얘기에 同門 교수로서 책임통감

개교 80주년 實務推行委員회 위원장 吳國根 (58영문·모교영문과 교수) 동문

『실무推行委員장을 맡은 때가 지난 3월이고 해서 시간이 너무 촉박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기조차 빠빠한 일정속에도

교, 민족근대사와 함께해 오며 지난 5월 8일로 개교 80주년을 맞은 모교에서는 윤해를 전기로 東國 1세기를 한한 새로 준비위원회 (위원장=金鎔貞 교수)」를 발족시킨데 이어, 금

운 도약을 꾀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개교 8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위원장=金鎔貞 교수)」를 발족시킨데 이어, 금

년 3월 17일에는 「개교 80주년 실무推行委員회(위원장=吳國根 교수)」를 새로이 발족시켜 東國의 역사와 전통을 대내외에게 널리 공시하고 천체동국인에게 東國人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양 할수 있는 거교적인 기념행사를 계획했으나, 학생회의 축제 거부 및 학사일정거부 등 잇단 학내소요로 그 결점사함이 대폭 축소 조정되거나 취소 또는 연기되고 별다른 행사를 치루고 못했다.

그러나 吳동문은 『이를 교훈으로 앞으로 90주년, 1백주년을 맞을 때에는 보다 장기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알

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東國 80년의 의미는 지난날의 영광에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80주년을 발판으로 더욱 정진하여 새로운 전통을 확립하고, 절적 양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학대의 종합대학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東國의 지난 80년을 풀이켜 볼 때 후반부로 오면서 점체어가는 느낌도 없지 않다면 『교세가 정체되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모교에 몸담고 있는 동문교수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에 대해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앞으로 90주년, 1백주년에 가서는 더욱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겁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노력한다면 東國의 앞날은 희망차다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吳동문은 동문들에게도『학생들은 명학에 정진하고, 우리 동문들은 世評을 이기고 자부심과 함께 동국 발전에 노력한다면 東國의 내일은 친란히 빛나게 될 것』이라며 강부하기도. <원>

### 『同門 둘는일에 회의도 중단』

#### 숙연했던 회장단회의

○… 7월 2일에 있은 제 3 차 회장단회의에서는 신입부 회장을 선임하고 사무국이 전에 관한 사항들을 매듭짓고 시종 회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회의도중 文泰植水석부회장의 발의로 金起東 (52국문·모교교수) 동문의 투병에 관한 얘기가 거론되어 잠시 숙연한 분위기. (보보 3월 31일자 110면 10면보도)

金동문이 85년 복학연수술을 받은 후 당뇨병과 뇌출증의 합병증까지 겹쳐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얘기를 전하면서 文부 회장이 「우리가 너무 무실했나…」며 눈물을 글썽이자 金東英부회장을 참석했던 회장단 전원이 회의도 중단한채 즉석에서 모금을 벌여 1백 만원을 모았다고.

모금된 1백만원을 사무국을 통해 전달기로 한후 鄭在哲회장도 「이번 모금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

회에 기증해와 현주소가 파악된 동문들에게 보내 드리게 된 것.

자신의 경사를 동문들과 함께 나누며 홍보도 꾀하는 이런것이 바로 石鳥二烏가 아닐련지요.

#### 자비는 청기서야조

○… 대통령기 야구대회 결승전이 벌어지던 날, 모교이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모교의 응원석은 기쁠의 환호성으로 가득.

한편 시종화려한 운동과 함께 열띤 응원으로 사기를 북돋았던 응원부원들이 관중석을 둘며 모금을 벌여 모금액 전액을 야구부 후원금으로내놓았다고.

백호기대회 결승전에서도 응원부원들이 모금을 하자 모교의 경기가 있을때면 생업도 제쳐놓은채 야구장을 찾는 많은 동문들, 차비까지도 다 후원금으로 내놓고 다시 차비를 꾸려나니는 춘국을 연출. 그래도 자랑스러운 후배들 덕분에 『요즘 살맛난다』는 同門들이 있는 한 東國의 미래는 당연히 밝습니다요.



東東國大同聯賽運動委員會

식을 선물받은 많은 동문들, 『이게 웬 책이냐?』며 동창회로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는데…

내용인즉 도서출판 「고려원」을 경영하고 있는 金洛天 (81· 행원·본회 사무이사) 동문이 창립 8주년을 기념해 홍보효과 노릴경 소설 「英雄門 1부 1권」 1만 5천여부를 동창

### 『야구도 우승 東國愛도 우승』

『민족문화문고·4천 8백권>

『대왕은 죽기를…』

李根三 동문

극작가 李根三 (52영문·서강대 교수) 동문의 세번째 회곡집『대왕은 죽기를 거부했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제18공화국」 「유관극단」에 이은 것으로 李동문이 1960년대에 발표했던 단막

극을 비롯, 최근 공연되고 있는 「꿈먹고 물마시고」와 「원고지」 「미련한 팔자대감」「거룩한 직업」「大王은 죽기를 거부했다」 등 11편의 작품을 싣고 있다. <문화세계사평>

### 『한국 연극사』

張漢基 동문

張漢基 (55국문·모교교수) 동문이 최근 한국 연극의 역사를 정리한『한국 연극사』를 펴냈다.

張동문은 이 저서를 통해 삼국시대 이진의 연극으로부터 삼국·고려·조선시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연극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수 있게 했다.

『타오르는 民主聖火』  
金東英 동문

金東英 (60政治·신민당원내총무·본회 부회장) 동문이 자신의 정치관을 담은 수필집『타오르는 民主聖火』를 출간 했다.

金동문은『타오르는…』에서 지난 79년 YH사건 이후 2·12 총선을 거쳐 지난 5월까지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의 소감을 수필형식을 벗어 피력하고 있다. <形成社刊>

저희 태화기업 은  
신용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는 종합건설업체입니다.

상가빌딩, 주택, 공장, 교회, 병원, 학교  
토목, 건축, 전기공사업 일체  
건설업면허 : 제918호

대표이사 정현화

◎泰華企業株式會社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4-4 영동우체국사서함 615호  
전화 : 566-4357~9, 568-5085

# 칼로리는 싫고, 단맛은 좋아요. 그린~그린~그린스위트

칼로리  
비만·당뇨



Sweet



설탕, 석가민과는 전혀 다른  
아스파탐으로 만든  
천연 단맛의 감미료—

기성용 닥용포장



그린스위트 천연설탕의 맛

- 희망소비자기여
- 기성용 닥용포장 100g포 : 2,500원
- 120g봉 3,500원 · 200g봉 5,000원
- 고锭 1g × 20포 : 1,000원 · 1g × 50포 : 2,400원
- 정제(유대용) 50정 : 1,200원 · 100정 : 2,000원

다이어트하면서 달콤함을 마음껏 —  
비만·당뇨·충치도 걱정없어요.

건강생활을 위한 녹십자의 또 하나의 성취—그린스위트.  
그린스위트는 칼로리 걱정없이 단맛을 즐기고 싶은 분,  
설탕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을 위해 태어난 저칼로리 건강감미료  
입니다.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2종으로 만든  
아스파탐이 주성분인 그린스위트는 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  
획기적인 건강 감미료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린은 건강, 스위트는 달콤— 이제부터 비만, 당뇨, 충치  
걱정이 없는 건강 감미료 그린스위트로 단맛을 맘껏  
즐기십시오.

#### 그린스위트의 특징

- 천연의 부드럽고 사뜻한 단맛입니다.
- 필수 아미노산계 감미료로 천연식품과 같이 체내에서 소화·흡수됩니다.
- 아스파탐의 안전성은 미국 FDA에서 공인되었습니다.

#### 그린스위트의 용도

커피, 홍차, 밀크, 딸기 등의 과일, 화채, 디저트, 각종 요리에 사용하시면  
맛과 향을 더욱 살려줍니다.



- 韓國大藥 그룹**
- 화학
    - 한국화약(주) • 한양화학(주)
    - 한국프로스틱그룹(주)
    - 경인에너지(주)
    - 금동제철상사(주)
    - (주) 빙그레
  - 에너지
    - 금동제철(주)
    - 고려시스템산업(주)
    - 한국증권(주) • (주) 산다
  - 무역
    - 태평양건설(주)
    - 제일화재해상보험(주)
    - 대우화재(주) • 삼회투자금융(주)
    - (주) 성문물산 • 서울도시호텔
    - (주) 삼양유통
    - (주) 한양화원
  - 식품
    - (주) 빙그레
  - 전자/기계
    - 고려시스템산업(주)
    - 태평양건설(주) • (주) 산다
  - 건설
    - 태평양건설(주)
  - 금융
    - 제일화재해상보험(주)
    - 대우화재(주) • 삼회투자금융(주)
    - (주) 성문물산 • 서울도시호텔
    - (주) 삼양유통
    - (주) 한양화원
  - 관광/운송
    - (주) 삼성물산 • 삼회통운(주)
  - 유통
    - (주) 한양유통
  - 사회복지
    - 천안복합학원 • (주) 빙그레이글스
  - 레저

# 나의 근무처는 뜻밖에도 미시간 주립대학이었습니다.

1983년 6월 색다른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내 전공인 고분자화학에 대한 연구를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뜻밖이라 어리둥절하는 가운데서도,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원 하나하나에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회사에 감사했습니다.

새 근무처 미시간 주립대학에 온지 3년 —

이제 내년이면 박사가 되어 그리운 동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취할 때까지 끝없이 도전하는 자세 —

한국화약그룹의 기업정신을 새삼 느끼며 그 뜨거운 창조의 현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화약(주) 대리 원 호연

